

# 이탈리아 현대 가구디자인의 특성 및 그 배경

- 1945년부터 현재를 중심으로 -

A study of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modern furniture design in  
Italy

정은미(Jeong, Eun-Mi)

상명대학교 공예학과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과 배경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이탈리아 가구 디자인에 영향을 준 요인

- 2-1. 자연환경적인 요인
- 2-2. 인문환경적인 요인
- 2-3. 산업환경적인 요인

## 3. 시대별 가구디자인의 특성

- 3-1. 1945-1959
  - 3-1-1. 시대적 배경
  - 3-1-2. 조형적 측면
  - 3-1-3. 산업기술적 측면
- 3-2. 1960-1969
  - 3-2-1. 시대적 배경
  - 3-2-2. 조형적 측면
  - 3-2-3. 산업기술적 측면
- 3-3. 1970-1979
  - 3-3-1. 시대적 배경
  - 3-3-2. 조형적 측면
  - 3-3-3. 산업기술적 측면
- 3-4. 1980-1989
  - 3-4-1. 시대적 배경
  - 3-4-2. 조형적 측면
  - 3-4-3. 산업기술적 측면
- 3-5. 1990-현재
  - 3-5-1. 시대적 배경
  - 3-5-2. 조형적 측면
  - 3-5-3. 산업기술적 측면

## 4. 결론

### 참고문헌

### (要約)

이탈리아의 디자인은 자유분방하고 유태주의(唯美主義)와 예술지향적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리조건, 민족성, 문화에 바탕을 둔 그들만의 특징을 양식화 시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건축가들은 전후의 국가재건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가구디자인은 타고난 자원부족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소재에 특유의 창조력을 바탕으로 심미적 요소를 가미하였으며 기업이 능력 있는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가구산업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날 유수의 가구산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탈리아 가구디자인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각 시대별로 이탈리아의 시대적 배경과 결합하면서 어떠한 특성으로 나타났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탈리아 디자인의 발전과정과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지니고 있는 지리조건, 민족성, 문화 등과 산업여건을 가구디자인 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Abstract)

It can be said that Italian designs are unrestrained, aesthetic and art for arts sake, and they come to stylize their character based on geographical features, racial traits and culture. The Italian architects work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ir devastated country and spare no pains to produce competitive goods on international markets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spite of a inherent scarcity of resources, Italian furniture is the product of mixture of aesthetic material and new material with creative gifts. A lot of companies succeed in finding and training capable designers and devote themselves to modern furniture industry. As a result, Italy becomes one of the worlds most eminent furniture industrial countries now. And the fame is owed to Italy's national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matter and endeavor without sparing systematic support.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which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the progress of furniture design in Italy and to analyze how these factors build up formative arts combining with historical background in Italy. Moreover, this research suggests how to make contributions to the cause of furniture design growth when considering our geographical features, racial characteristics, culture and industrial circumstances, by analyz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strategy in Italian design industry.

### (Keyword)

Italian furniture, Historic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과 배경

가구는 한 문화체계가 기반으로 삼고있는 물질적, 상징적, 기능적, 표현적 관계들이 형성하고 있는 조직체의 직접적 일부 분이자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충실한 거울'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름답게 디자인된 사물은 사용자에게 시각적 쾌감을 줄 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sup>1)</sup>는 주장했다. 이탈리아 건축가들은 건축물로부터 내부의 모든 것을 직접 디자인하고자 했고 가구 역시 디자이너 개인의 개성과 사상을 존중하며 특수한 독립적 정신을 담아냄으로써 국제적으로 성공하였다.<sup>2)</sup>

본 연구는 이탈리아 가구디자인의 성공요인인 뛰어난 직관력과 생산구조 그리고 기업활동과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낸 효율적인 산업기반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탈리아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탈리아 디자인의 형성배경과 발전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한 나라가 지니고 있는 역사, 지리조건, 민족성, 문화 등을 디자인 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오늘날 이탈리아 디자인의 배아가 된 창조적 원형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인 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제한하였다. 분석대상은 인체계(人體系)가구를 중심으로 하였고 연구 방법으로는 가구전시장, 가구박람회, 가구공장, 가구회사 등의 방문을 통해 접한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각종 문헌, 팸플릿, 사진을 분류·정리하여 조형성의 요소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 2. 이탈리아 가구디자인에 영향을 준 요인

### 2-1. 자연환경적인 요인

이탈리아는 반도국가로서 전반적인 기후는 온화하면서 사계절이 뚜렷하며 민족성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감수성이 풍부하여 예술을 사랑하고 감각이 뛰어나다. 이탈리아인은 기독교 사상이 뒷받침된 오랜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중후한 문화를 애호하며 대체로 외교적이고 대범하며 쾌활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3)</sup> 따라서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개방적이면서도 자신들의 주체성은 결코 잃지 않았다.

북부 이탈리아의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를 잇는 공업 삼각지역은 북유럽에서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관문이었으며 또한 알프스의 풍부한 공업용수 및 수력자원과 포강(江) 평야 지대의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물질적 풍부함으로 인해 경제 발전이 일찍 이루어졌으며 근대 산업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 이탈리아의 작가, 기호학자(1932~)

2) Nina Bornsen-Holtmann: Italia Design, Taschen, P.8, (1994)

3) 세계 대백과 사전, 동서문화, N.19, P.12759, (1997)

### 2-2. 인문환경적인 요인

탁월한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디자이너의 우월성을 키워나갔고 디자인 접근방법도 오랜 문화적 체험을 통한 사상적이고 철학적이면서 인간적 디자인으로 귀결되고 있다. 훌륭한 문화적 환경으로 디자이너의 창조적 세계를 잘 이해하는 문화적 관용, 항상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사회, 창조에 열중하는 정열, 낙천적으로 인생을 찬미하는 생활태도 등과 함께 각종 출판과 전시회가 발달하여 이태리의 질 높은 디자인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이탈리아 문화에서는 고대 로마의 문화적·정신적 전통과 카톨릭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차치도시의 전통으로 향토주의가 특히 두드러지고 각 지방마다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요소가 역시 디자인에 반영되었다.

역사적으로 이탈리아의 디자인 경향에 영향을 미친 조형운동으로서 이탈리아의 모던 디자인 경향인 기계주의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미래주의 디자인, 파시즘하의 합리주의 디자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하에 대표적인 이탈리아 디자인 경향인 알키미아(Alchimia), 멤피스(Memphis)그룹의 디자인이 이탈리아 디자인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다.<sup>4)</sup>

### 2-3. 산업환경적인 요인

이탈리아의 기업형태는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중소기업 형태로서 전통적 숙련공에 의존해 제품의 질은 높으면서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꾀할 수 있었다. 가구산업이 대부분 수공업에서 현대화로 전환한 1950년대쯤에는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로 한 수출지향적인 제품을 개발하였고 기업경영주와 디자이너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소재에 심미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 3. 시대별 가구디자인의 특성

### 3-1. 1945-1959

#### 3-1-1. 시대적 배경

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 경제는 완전한 파산상태였다. 재건 계획의 이행과 물질적, 문화적 영역에서 뒤쳐진 모든 것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강한 부흥열기가 일어났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탈리아에서는 급속한 국가재건, 낙관주의적 인식과 실질적 태도 등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형성되었다.

이탈리아 건축가들은 전후의 국가 재건과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창출하려는 노력에 있어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1946년에는 밀라노의 Convention Hall에서 최초의 가구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그 주제는 경제성, 기능주의와 좋은 취향(Good Taste)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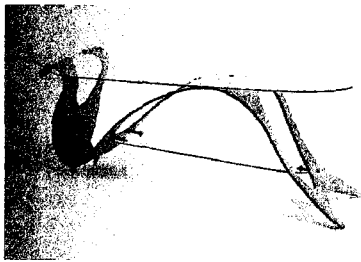
1951년에 개최된 밀라노 트리엔날레(Triennale)는 전후의 산업 성장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는데 광범

4) 경노훈·윤민희: 디자인 문화의 생활, 예경, P.P.205-206, (1999)

위한 분야에 걸쳐 전시된 이 전시회에서는 기능적 효용성, 목적의 적합성, 재료의 적절한 사용 등이 잘 나타났다. 또한, 이탈리아인들은 잡지매체를 디자인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1950년대 세계의 우수한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도무스(Domus)지는 산업 디자인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으며 54년 리나센테(Rinascete)백화점은 미학적, 기술적, 기능적인 면에서 뛰어난 공업제품에 수여되며 오늘날에 와서도 이 상을 수상한 제품의 디자인 수준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콤파소도로(Compasso d'Oro)賞을 제정했다.

### 3-1-2. 조형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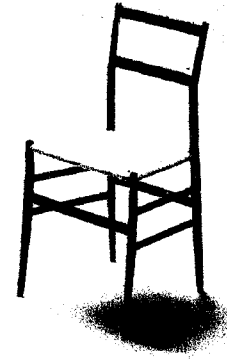
이 시기에 이탈리아의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하는 유기적 모더니즘(Organic Modernism)과 겸소하고 절제된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ism Style)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조형양식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초현실주의(Surrealism)디자인, 현대 역사주의(Modern Historicism)디자인 그리고 합리주의(Rationalism)디자인이었다. 초현실주의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 디자이너는 카를로 몰리노(Carlo Mollino)였는데 목재를 곡선으로 처리한 그의 가구는 전통적인 가구보다는 유기적 형태로서 조각품과 유사점이 더 많다. 그가 1949년에 멀티플라이우드(Multiplywood)를 이용해서 제작한 테이블 '아라베스코(Arabesco)'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그림 1] '아라베스코' 카를로 몰리노 (1949), 합판을 구부러서 제작한 테이블

현대 역사주의 디자인의 경향은 과거의 조형양식을 재(再)디자인하는데 목적을 두면서 기술과 재료의 폭넓은 수용과 절제미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한 경향은 지오 폰티(Gio Ponti)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그의 디자인은 급진적이지 않고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장인들이 만든 무명의 작품에 근거해 있었다. 그가 1957년 카시나(Cassina)社를 위해 제작한 등나무 좌석과 단단한 목재를 이용한 의자 '수페르레제라(Superleggera)'는 아직도 '의자의 정점'과 동의어로 통한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고, 가벼우면서도 견고하다. [그림 2]

모더니즘의 조형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합리주의 디자인은 기술과 소재의 합리성을 형태에 반영하여 조형미를 갖는 공학적인 디자인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마르코 자누소(Marco Zanuso)인데 그가 1951년 아르프렉스(Arprex)사를 위해 디자인한 소파 '레이디(Lady)'는 재료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미래형 의자구조와 형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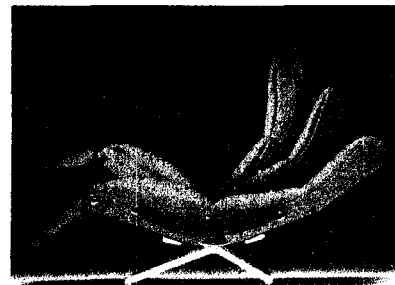
[그림 2] '수페르레제라', 지오폰티 (1957), 등나무 줄기와 물푸레 나무로 제작

### 3-1-3. 산업기술적 측면

전후시대의 협소한 아파트는 가변적이고 가볍고 이동성이 강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요구했다. 가구 이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 - 자동차 공업 - 이 가구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동차 좌석에 사용되는 발포고무는 팔걸이의자나 소파의 패드에도 사용되었다. 발포 고무는 피렐리(Pirelli)社가 시장에 내놓은 신소재였다.

마르코 자누소(Marco Zanuso)와 오스발도 보르사니(Oswaldo Borsani)가 디자인한 의자와 소파는 자동차 좌석과 유사점이 매우 많았다. 발포 고무로 안을 댄 이들 의자는 최신 기계공학 덕분에 각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소파는 손쉽게 침대로 펼쳐낼 수 있어야 했는데 오스발도 보르사니의 유명한 침대의 자 시스템인 'D70'과 라운지 의자 시스템인 'P40'이 있다.<sup>5)</sup> [그림 3] 이들의 명료한 형태는 전형적인 50년대풍이면서도 시대를 초월한 것이기도 하다.

이탈리아 철강 산업은 번창했으며 가구디자인에서는 새로운 값싼 강철을 소재로 다이캐스팅(Die Casting)<sup>6)</sup>같은 신기술이 디자이너에게 채택되었다.



[그림 3] '모델P40', 오스발도 보르사니 (1954), 강철 프레임에 패드, 발포고무로 된 팔걸이

5) Ibid: P.58, (1994)

6) 주형법(鑄型法): 주물을 금형에 가압주입하여 고속으로 금속을 주조하는 방법

50년대 중반이 되자 플라스틱이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많은 디자이너들은 그 새로운 미학적 특성과 대량생산성 때문에 이 신소재에 즉각적인 흥미를 보였다. 다음 몇 년간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은 플라스틱을 이용해 인습에 사로잡히지 않은 아름다운 가구와 가재 도구를 창조해냈다. 50년대 이 분야를 선도한 것은 1949년에 창립된 카르텔(Kartell)社였다.

### 3-2. 1960-1969

#### 3-2-1. 시대적 배경

1960년대는 가장 격렬한 동요와 역동성의 시대였으며, 경제 성장과 신상품, 시장 개척의 시대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의 재정의,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 디자인과 이데올로기, 사회문제에 관한 각종 사고와 논쟁이 번성한 시기였으며, 이에 따른 당연한 논리로 가구와 가구 제조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법과 연구 과제가 대두된 시대였다. 1961년에는 훗날 이탈리아 가구산업의 성장과 국제적 성공의 상징이 될 밀라노 가구 박람회(Salone del Mobile di Milano)가 개최되었다.

60년대 초반 이탈리아의 경제적 성장과 소비주의의 물결은 그 정점에 달했다. 60년대 말이 되면,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은 국제적 인정을 받고 전후 유럽에서 우세했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명성을 앞서 나가게 된다.

한편, 60년대 말 시작된 경제위기와 함께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갓 졸업한 새로운 세대는 지체없이 앞선 세대가 산업계에 너무 깊이 의존했으며 디자인의 민주적,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기성 디자이너들간에도 자아비판을 들을 수 있었다. 혁신적인 젊은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그룹을 결성했고 이들 그룹의 작품 중 지속력 있는 제품은 거의 없지만 이들의 디자인과 아이디어, 개념은 새로운 운동을 촉발했으며 중요한 파장을 낳았다. 1966년, 새로운 그룹 중에서도 급진적인 건축가 모임인 슈퍼스튜디오(Superstudio)와 아키즘(Archizoom)이 결성되었다. '반디자인(Anti Design)'<sup>7)</sup> 또는 '급진적 디자인(Radical Design)'의 개발 뿐 아니라 유토피아적 도시 계획에도 관심을 두었던 이들의 제안은 널리 활자화되었으며 많은 논의를 유발해냈다. 이들은 몇 개의 기관지를 발행했으며 세미나를 개최했다.<sup>8)</sup> 알렉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으로 부터 뎀피스(Memphis)에 이르는 후대의 모든 발전에 일종의 불씨가 된 것은 아키즘과 그 지도자 안드레아 브란지(Andrea Branzi)였음을 지적한바 있다.

#### 3-2-2. 조형적 측면

이 기간 동안 이탈리아에서는 당시 대두되기 시작한 급진적 디자인의 영향을 받은 반형식주의(反形式主義), 반상업주의(反

7) 현대의 제도화되고 체계화된 디자인에 반대하는 모든 경향. 이와 같은 노선으로서 급진적 디자인은 60년대 후반 이후 이탈리아의 에토레 소트사스, 안드레아 브란지, 알렉산드로 멘디니 등이 중심이 되어 소비주의와 획일성에 반대하여 대중적 취향과 일상의 자질구레한 사물의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였다.

8) Ibid: P.P.26-30, (1994)

商業主義)를 표방한 제품이 많이 제작됨으로써 디자인에 논쟁을 제공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비평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기술에 바탕을 둔 합리주의 경향의 가구들도 꾸준히 제작되어 새로운 조형양식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가구, 전자제품과 조명기구의 디자인에서는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 졌다. 창의력이 풍부하고 실험적인 디자이너였던 조 콜롬보(Joe Colombo)는 눈을 끌면서도 기능적이고 정교한 디자인을 내놓았다. 카르텔社를 위해 그가 디자인한 나일론과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된 겹쳐 쌓을 수 있는 의자(Stacking chair)인 '모델4860'은 편안하면서도 건축적이고 엄숙한 스타일이었으며 생산기술에서나 형태면에서 가구 구성에 있어 플라스틱의 사용법에 대한 모델역할을 했다. [그림 4]



[그림 4] '모델4860', 조 콜롬보(1965),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스택킹 체어

카르텔社는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가구 생산업체 중의 하나로서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유지해 나갔으며 플라스틱이 가구 디자인에 효과적으로 쓰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플라스틱을 이용한 실험은 형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몇몇 의자에서 꼭 편안하지는 않지만 비인습적인 디자인을 보여줌으로써 60년대의 상징이 되었다. 카를라 스킨라리(Carla Scolari)가 67년에 플라스틱에 공기를 불어넣어 제작한 의자 '블로우(Blow)'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또한, 피에레 가티(Pierre Gatti)에 의해 디자인된 의자 '사코(Sacco)'는 직경3mm의 작은 플라스틱 구슬을 채워 넣은 것으로 어떠한 크기와 체형의 인체에도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극단적으로 무정형적(Flexible)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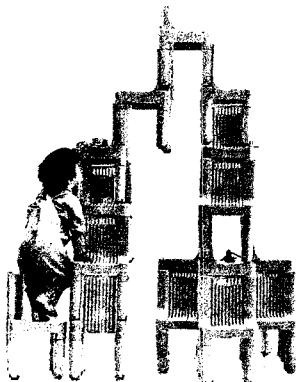
[그림 5] '블로우', 카를라 스킨라리 외 (1967), PVC로 제작되어 필요에 따라 부풀려서 사용하는 임시적인 가구

그러나 이런 실험적인 형태의 의자는 그들이 덮개를 씌운 기존의 의자와 대치하려고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덜 안락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유행하였으며 보다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중요한 가구는 플라스틱에 적합한 커버를 씌워 팽창시켜 만든 종래의 방식을 따른 형태의 의자와 소파였다. 이와같은 의자는 딱딱한 틀과 가장자리에 스프링을 넣어서 만든, 천으로 댄 통상적인 가구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락함이나 내구성에 있어서 그리 떨어지지 않았다.

### 3-2-3. 산업기술적 측면

강화 플라스틱(Fiber-Glass Reinforced Polyester: FRP<sup>9)</sup>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최초로 의자의 기본구조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대량생산해 낸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플라스틱은 재래의 재료에 비하여 보다 복잡 미묘한 것으로서 합성재료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구성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와 제작방법이 나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플라스틱을 가구재료로써 받아들여 대량생산한 사람은 마르코 자누소(Marco Zanuso)인데, 1960년에 강화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어린이용 의자를 제작했다. 이 의자의 등받이 부분과 다리는 서로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성(城)모양으로 쌓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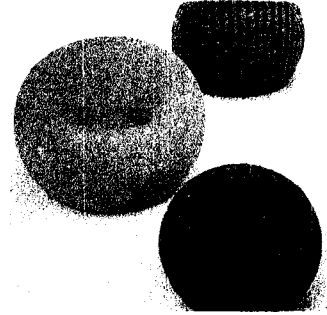


[그림 6] '어린이용 의자' 마르코 자누소(1960), 강화플라스틱

이탈리아 디자인에 국제적인 관심을 가져다 준 것은 과학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원가가 낮은 가구였다. 마르코 자누소와 조 콜롬보(Joe Colombo)에 의한 플라스틱 실험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준 높은 가구를 생산함으로써 우수한 현대가구를 대중에게 보급하는 길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플라스틱 실험과 유기적 모더니즘이 결합하여 이탈리아에서는 플라스틱을 부풀림으로써 조각적인 형태를 띤 가구가 많이 제작되었다.<sup>10)</sup>

새로운 기술을 통해 양식상의 테마를 찾은 몇몇 디자이너들은 여러 해에 걸쳐 자신들의 작업을 창조적으로 다듬었다. 유명

한 예가 가에타노 페세(Gaetano Pesce)의 경우인데 80년대 가장 뛰어난 디자인을 보여주게 될 그는 이 시대동안 카시나&부스넬리(C&B: Cassina & Busnelli)가 생산해낸 'UP' 의자 시리즈에서 그의 디자인 개념의 실례를 보여주었다.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에 공기를 팽팽하게 압축시킨 뒤 여러 가지 천으로 외장(外裝)한 가에타노 페세(Gaetano Pesce)의 의자는 원래 크기의 1/10로 압축된 진공 포장 상태로 손쉽게 가정으로 배달할 수 있었다. [그림 7]



[그림 7] '업 시리즈' 가에타노 페세(1969), 폴리우레탄 폼에 다양한 천으로 외장

### 3-3. 1970-1979

#### 3-3-1. 시대적 배경

이스라엘과 인접 아랍국가간의 끝없는 투쟁이 낳은 제 4차 중동전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가져왔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75년에는 이탈리아의 GNP가 하락했으며 식품을 포함한 총소비가 감퇴되었다. 경제 기적의 효과는 끝났으며 이탈리아의 생산 구조는 그간의 주요 경제 경쟁국들의 성취에 비해 구시대적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보였다.<sup>11)</sup>

석유 위기는 경제 전반과 디자인에 너무나 중요한 플라스틱 산업을 침체시켰다.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소란스런 시대상황에 의해 교란되지 않은 여러 기성 디자이너들은 대기업과의 밀접한 연관하에 작품 활동을 계속했다. 70년대는 이탈리아 디자인의 이정표를 낳은 시대가 되었다.

모더니즘, 이성중심경향의 건축과 디자인에 반대하는 조류를 말하는 '포스트모던(Postmodern)'이란 단어가 탄생했다. 재료, 구조, 형태와 기능을 디자인에 정직하게 구체화하는 것을 기본철학으로 삼았던 모더니즘이 표현적이고 상징적인 내용면에서 그 미적 가치가 결핍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장식성 심지어 일회성, 장난기를 갖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개척하자는 의미에서 나타났던 '팝(Pop)디자인'이 그 초기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현상이 전 디자인 분야에 두드러졌다.

9) 폴리에스터에 유리섬유를 짜넣어 보다 강화시킨 플라스틱으로서 고강도의 합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으로 강도면에서 다른 재료들과 견줄 수 있다.

10) Karl Mang: History of Modern Furniture, Abrams, P.170, (1978)

11) Laura Lazzaroni; 35 Years of Design at Salone Del Mobile, Cosmit, P.41, (1996)

12)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P.237, (1991)

### 3-3-2. 조형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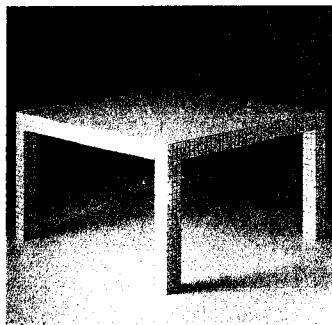
1970년대에 이탈리아 디자인의 고전적, 현대적 경향은 미니멀리즘(Minimalism)디자인과 하이테크(High-Tech)디자인의 출현으로 기능주의적인 우아함에서 최고에 이르게 된다. 미니멀리즘은 과거 모더니즘의 기계미학에 의한 단순함이 아닌 개념미술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절제된 조형 언어와 본질적 디자인으로 단순성과 우아함을 보여 준다. 또한 하이테크 디자인은 공업제품이 갖고 있는 성능이나 미학을 디자인에 응용하는 경향을 말한다.

지안카를로 피레티(Giancarlo Piretti)가 1967년 디자인하고 카스텔리(Castelli)사가 생산한 강철과 플라스틱 소재의 접는 의자 '플리아(Plia)'는 형태를 최소한으로 축소시켰으며 비물질적인 투명성을 보여준다. [그림 8] 간결한 윤곽선의 단순한 철제 프레임 위에 가죽 또는 직물 덮개로 덮은 마리오 벨리니(Mario Bellini)가 디자인하고 카시나(Cassina)사가 생산한 의자 '캡(Cab)'은 가벼움과 구조의 간결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수퍼스튜디오와 아키쥬의 디자인 중 몇 가지는 상품화되어 성공을 거두었다. 수퍼스튜디오의 디자인 중 가장 유명하고 오래 생산된 제품은 '구아테르나(Quaderna)' 테이블로 플라스틱 라미네이트(Laminate)를 격자문양으로 붙인, 단순하고 간결하며 우아한 제품이다. [그림 9]



[그림 8] '플리아' 지안카를로 피레티(1967), 강철과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접는 의자



[그림 9] '구아테르나' 수퍼스튜디오(1970), 플라스틱 라미네이트로 제작

### 3-3-3. 산업기술적 측면

1970년대 말까지 이탈리아 디자인은 세계에서 그 지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국내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불안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디자인의 특성과 양식면에서 특별한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1970년대 이후의 디자인계가 반 디자인 증상을 앓고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속에서도 모더니즘의 합리주의 디자인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시기에는 좁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시스템가구나 그 구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플라스틱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형식과 구조의 제품을 탄생시켰다.

마리오 벨리니(Mario Bellini)가 비엔비(B&B)이탈리아사를 위해 디자인한 '밤볼레(Bambole)' 소파는 종래의 체적측정법(體積測定法)에서 분리되어 확실한 구조를 갖지 않는다. 삼단 폴리우레탄(Polyurethane)으로 모양이 형성되었고 탄력성 강화 방식에 따라 직각인 모서리에 굴곡을 주었다. 이것은 최신 기술을 응용하여 종래의 의자나 소파에 신선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불어넣은 작품이다.<sup>13)</sup>

### 3-4. 1980-1989

#### 3-4-1. 시대적 배경

1984년 타임誌는 전통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올해의 인물 특별판에서 컴퓨터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함으로써 전자통신공학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지만 당시로서는 가정마다 컴퓨터 한 대씩을 보유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이 번창하리라는 예측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독자들간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환경 문제 역시 극적으로 폭발하여 지구는 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를 몰랐다.

이 때는 이탈리아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인플레이의 시대였지만 가구와 실내 장식업계 그리고 패션과 의상업계의 각 부문에서도 'Made in Italy'가 최고의 위치를 확고히 한 시대이기도 했다. 주요 업체들은 연구와 디자인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으며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체는 그 규모덕분에 유연성 있는 대응에 가장 적절한 생산 모델로 보였다.<sup>14)</sup>

기능주의 디자인은 바우하우스(Bauhaus)에 의해 실현되어 20세기 현대디자인의 개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 가치기준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디자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양식을 탐색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선구자들이 창조했던 여러 양식을 절충하거나 모방하고 개작(改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으로 집약되어 나타났다. 특히, 가구에 있어서는 이탈리아의 진보적인 디자인 그룹인 멤피스(Memphis)에 의해 고취되어 유럽대륙과 미국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나, 중국적으로 멤피스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용될 가구는 낳지 못했으며 그보다는 특정한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급진적 디자이너들은 전체 디자인계의 경향에 자극을 주었다.

13) 편집실 역: The Italian Furniture, 가구소식, P.76, (1991)

14) Ibid: P.P.82-83, (1996)

다소 차가운 하이테크 디자인으로부터 기능주의, 최고의 소재가 사용된 사치스럽고 과장하기까지 한 포스트 모던 디자인에 이르는 다양한 운동이 동시에 전개되었고 이들은 '이탈리아적 선의 아름다움'을 발굴하는데 일조를 했다.

### 3-4-2. 조형적 측면

멤피스가 실내풍경을 유희적으로 풍경화한 반면 다른 디자이너들은 '부드러운' 형태와 소재로 돌아서서 부풀어오른 모양의 소파, 포근한 휴식처를 제공해주는 의자, 또는 최고의 안락감을 지닌 가구를 창조해냈다.

81년 9월 멤피스 그룹이 전위적 관객을 대상으로 개최한 첫 전시회는 열광적으로 환영받았다. 이들은 81년 9월 밀라노의 Galerie Arc 74에서의 광적이고 원색적인 가구와 오브제로 하룻밤 사이에 명성을 얻었다. 전시된 것은 31점의 가구와 3점의 시계, 10점의 조명 기구와 11점의 도자기였다. 사람들은 독특하고 화려한 문양이 프린트된 플라스틱 라미네이트를 사용한 가구의 평범치 않은 형태와 색채에 매료되었다. 독특한 화려함을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이들 가구와 물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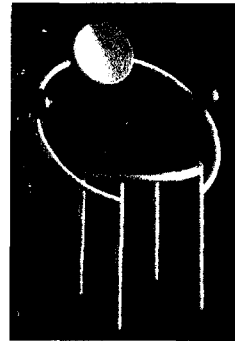


[그림 10] 첫 번째 멤피스 그룹 전시를 위해 디자인된 타와라야(Tawaray)랑에서의 에토레 소트사스를 비롯한 멤피스의 멤버들 (1981)

멤피스의 가구는 차갑고 획일화되어 가는 기능주의에 반대하여 가구에 장식성과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긴밀한 교감을 이루고자 시도한다. 그것의 형태적 특징은 모서리가 예리한 각을 이루며 날카로운 기하학적 형태와 원을 주로 결합하였고 대칭·비대칭·사선 등의 모든 요소가 수용되었다. [그림 11]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유희적 감각을 강조하기도 한다. 멤피스의 디자이너에 있어서 색채는 보다 중요한 가치였다. 모든 색채가 예기치 않게 결합되며 채용되었고 그리하여 원시적이며 환상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80년대 카시나(Cassina)社は 여러 명의 디자이너에게 사용가능성이 서로 다른 전체 의자군의 디자인 작업을 맡겼다. 27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2차 대전 이후 건축가에게 디자인을 의뢰하면서 가구디자인계의 가장 중요한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되었다. 카시나社와 작업한 디자이너로는 지오 폰티, 마리오 벨리니, 비코 마지스트레티, 가에타노 페쇄등이 있다. 당대의 가장 비범한 디자이너중 한 사람이었던 가에타노 페쇄는 조각

품을 다루듯 가구들을 디자인한다. 디자이너로서 그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는 의자 중에서 칸나레지오(Cannaregio)는 열 개의 서로 확연히 다른 형태의 의자들로 부풀어 오른 듯한 언덕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카시나社가 제작한 그의 펠트리(Feltri) 안락의자의 아랫부분은 하중을 받기 위해 폴리에스터 수지(Resin)로 성형되었고 다양한 색상의 펠트로 제작된 시이트(Seat)는 대마끈으로 프레임에 고정시켜 사용함으로써 옷과 같이 세탁과 다른 색의 시이트 교환이 가능하다. 그는 의자란 앉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몸을 감싸는 옷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론적 해석을 피력한 바 있는데 꽃잎처럼 벌어진 팔걸이는 앉는 이를 가까이에서 감싸려는 듯 하다. [그림 12]



[그림 11] '퍼스트', 미켈레 데 루끼(1983), 강철 파이프와 도장한 목재로 제작된 멤피스의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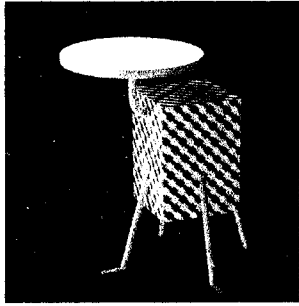


[그림 12] '펠트리' 가에타노 페쇄(1987), 플라스틱 프레임에 펠트로 외장한 의자

### 3-4-3. 산업기술적 측면

멤피스가 제안한 현대 신흥공업재료의 이용은 디자이너에게 재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만들었으므로 재료를 디자인의 단순한 매개체 또는 조역으로서가 아닌 주역으로써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재료의 개혁에서 얻어진 것은 바로 플라스틱 라미네이트(Laminate)였다. 가구에 있어서 플라스틱 라미네이트의 사용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획기적이었다. 특히 그것에 프린트(Print)처리를 함으로써 기존의 가구 디자인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외에도 프린트 글라스(Print Glass), 형압요철판(Embossing), 아연판, 셀룰로이드, 네온관, 칼라전구 등 과거 디자이너들이 외면했던 소재들을 과감히 도입하여 자신들의 표현매체로 삼았다.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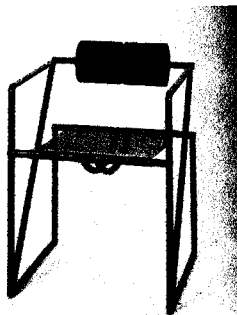


[그림 13] '크리스탈', 미켈레 데 루끼 (1981), 강철과 목재에 도장하고 플라스틱 라미네이트로 제작된 멤 피스의 테이블



[그림 15] '윙크', 토시유키 기타(1980), 강철 프레임에 폴리에틸렌 폼을 쿠션재로 사용

멤 피스의 극적인 디자인이 80년대를 지배했지만, 다른 디자인 운동 역시 발전해 나갔다. 이 운동들의 형성에는 디자이너의 독립성과 다양한 생활양식이 영향을 끼쳤다. 알리아스(Alias)社와 그 디자이너 마리오 보타(Mario Botta)는 하이테크 디자인의 성향을 강화시키면서 꾸준히 이성적 디자인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1982년 제작한 '세콘다(Seconda)' 의자는 전기도금된 강철 프레임에 종이장 처럼 얇은 강철판이 좌판으로서 고정되어있고 두 블록(Block)으로 이루어진 원통형태의 폴리에틸렌 폼이 등받이를 형성하고 있다.<sup>15)</sup> [그림 14] 카시나(Cassina)社의 '윙크(Wink)' 의자는 강철프레임에 폴리에틸렌 폼(Polyethylene Foam), 테이크린(Dacron), ABS수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탈·부착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있다. 등받이는 여러 각도로 조절되며 의자의 다리가 마치 사람의 무릎처럼 펴지면 긴 의자(Chaise-Longue)로 변한다. 머리 부분은 일반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중심을 뒤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sup>16)</sup> 이처럼 앉는 자세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는 가변성(可變性)으로 인해 '가구의 미래, 인간과 가구와의 미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림 15]



[그림 14] '세콘다', 마리오 보타(1982), 강철 프레임에 타공철 판으로 좌판을 형성한 의자

### 3-5. 1990-현재

#### 3-5-1. 시대적 배경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2차대전 이래 40여년간 계속된 유럽 평화의 파괴는 곧 전세계적인 폭력의 번성으로 이어졌다.

92년부터 유럽 전체를 강타한 경제 위기시대의 시작 때문에 이탈리아는 한편으로는 기록적인 실업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란과 가난이 만연한 세계에서 결사적인 탈출을 시도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이민자의 이입이라는 대조적 상황이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났다.

국내 시장이 침체된 이 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많은 산업 분야 특히, 가구는 수출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성취했으며, 기업 활동과 고용에 안정을 가져왔다.

90년대 들어서는 점점 단편화되고 특수화되어 가는 사회의 다원주의를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80년대의 디자인이 간결하고 엄격하거나 아니면 요란하고 장식적인 것의 양편으로 나뉜 반면 90년대의 디자인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물품이나 그 기능을 세련되게 하는 것 이상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점점 더 자극적이며 정서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그 구조와 의미가 바뀌고 있는 세계에서 가구는 잃어버린 정서와 포근한 위안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 3-5-2. 조형적 측면

80년대의 이미지 공해 이후 90년대 초반에는 다양한 조류가 등장하였다. 그 중 미니멀리즘과 신헌리주의 디자인을 향한 경향은 매우 뚜렷이 대두되었다.

아방가르드 운동의 종결과 경박하고 모순적인 모방의 범람 후, 91년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나타난 경향을 통해서 정상성으로의 복귀라는 90년대의 조류를 엿볼 수 있었다. 90년대 가구디자인은 보는 이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십여년간의 급진적 경험과 전통적 가치의 연결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문화적 인용과 옛 시대의 가구와의 선택적 유사성도 나타났다. 로베르토 라체로니(Roberto Lazzeroni)가 로씨 디 알비자테(Rossi di Albizzate)社를 위해 디자인한 비치우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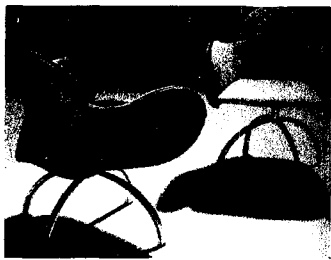
15) Volker Fischer : Design Now(Industry or Art?), Prestel, P.48, (1989)

16) Ibid: P.218,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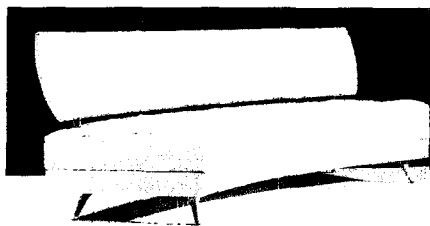
쿠션가구 시리즈는 1950년대에 보여졌던 형태와 현대식 곡선, 유기적인 곡선간의 접목을 제시했다.

욕망을 충족시키고 꿈꿀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꿈을 제공한다 - 많은 디자이너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임무 중 일부로 보고 있다. 마씨모 이오자기니(Massimo Iosa Ghini)는 그의 안락 의자에 맘마(Mamma:엄마라는 뜻)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것이 주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보호, 온기, 위로였다. 비코 미지스트레티(Vico Magistretti)와 프란체스코 빈파레(Francesco Binfaré)는 상상의 세계에서 모티프를 빌려왔다. 그들의 안락의자 인시카(Insica)의 외피는 90도 각도로 돌려놓은 안장처럼 보이며, 소재 역시 안장과 같은 가죽으로 제작되어 있다. 좌석 안쪽은 안장 덮개를 닮은 켈팅천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7)</sup> [그림 16]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외관을 갖춘 작품에 도달하려는 시도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 시기의 미니멀리즘은 자연주의 경향의 가구로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 것과 극도로 절제된 조형요소에 의한 경향의 가구로 현대의 조형감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17]



[그림 16] '인시카', 비코 마지스트레티(1992), 강철 프레임과 가죽, 천으로 제작한 회전 의자



[그림 17] '무타빌리스', 지세페 비기노(1995), 프레임과 등받이를 등나무로 엮고 켈팅천을 쿠션재로 사용한 자연주의와 미니멀리즘 경향의 소파

### 3-5-3. 산업기술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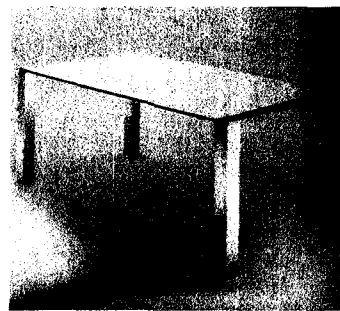
이 시기에는 형태상의 조류에 집중되던 관심이 점차 다른 기준들로 이전되기 시작했다. 즉 작품 평가에서 만족스런 제품의 판정기준과 유효성의 기준이, 단순한 미로부터 소재의 신중한 사용, 적절한 가격대 품질비, 환경적 요소, 사용성 등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분리와 조립이 용이한 제품에 대한 연구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인 플라스틱의 재생과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자연색상의 사용 등 자연과 인류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것이 자연주의(Naturalism)로 나타났다. 1993년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 과학 기술 박물관은 유명한 가구 제조업체가 생산한 안락의자와 소파, 그리고 밀라노에도 시설을 두고 있는 다국적 화학회사인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사의 신소재 'Waterlily Comfort'를 소재로 사용한 쿠션가구가 전시된 'Da una goggia d'acqua un mare di progetti'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수용성 배합소재는 수명이 다한 후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합성원리에 의해 '발효'된다.<sup>18)</sup> [그림 18]



[그림 18] '미스핏', 론 아라드(1993), 환경친화 신소재 'ICI Waterlily'로 제작된 소파

또한 기업들마다 환경주의에 대한 인식으로 환경오염도가 적은 재료와 무독성 화학공정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소재면에서도 목재 외에 등나무, 골풀 등 자연적인 식물 섬유 소재의 복귀가 눈에 띠었다. 또한 유리와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여 형태는 극도로 단순하면서 재료자체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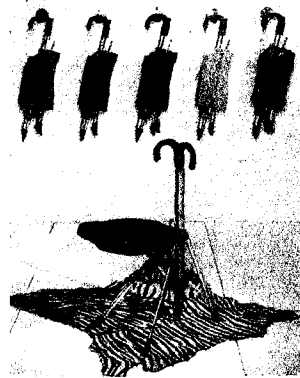
[그림 19] '밍크', 이탈로 페르티니(2000), 알루미늄과 유리로 제작된 테이블로 조립과 분해가 가능

특정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가구에 다기능성, 변형성과 이동성을 높이는 기계적 특성을 지닌 가구의 경향 또한 두드러졌다. 가에타노 페세가 제로디제노(Zerodisegno)社를 위해 디자

17) Nina bornsen-Holtmann: Italian Design, Taschen, P.148, (1994)

18) Laura Lazzaroni : 35 Years of Design at Salone Del Mobile, Cosmit, P.134, (1996)

인한 접이식 의자인 움브렐라(Umbrella)는 디자인상의 발명과 인식 파괴를 시도한 작품이다. 이 의자는 접었을 때는 마치 우산처럼 손에 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버튼(Button) 하나를 누르는 것으로 의자를 펼 수 있다. [그림 20]



[그림 20] '움브렐라,가에타노 페셰(1995), 접이식 의자

비코 마지스트레티가 캄페지(Campeggi)社를 위해 디자인한 접이식 소형 안락의자 케니아(Kenia)는 초경량에 손잡이와 바퀴를 장착함으로써 이동성이 매우 뛰어나다.

#### 4. 결론

이탈리아의 디자인은 유미주의적, 예술지향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형, 민족성, 국민성에 바탕을 둔 그들만의 특성을 양식화시켰다. 1945년까지 완전한 파산상태였던 국내 경제 상황에서 이탈리아 가구업체가 점차 2차 대전의 여파를 극복해나가는 것 뿐 아니라 빠른 속도로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디자이너와 제조업체간의 새로운 협동과 신뢰관계에 의해 '부활'된 중요한 연구와 가구 디자인 분야의 업적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수준의 수공예적 전통, 소재에 대한 민감성과 세부에 대한 애정, 뛰어난 미적 유산, 세련된 문화적 수준 그리고 엄격한 기업형 조직 구조가 아닌 유연한 조직 구조까지도 이탈리아 가구산업발전이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1945년 이후 이탈리아 가구의 특성과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이탈리아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 원조하에 인구 대다수에 영향을 미친 기적적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이동성이 강하며 소비 지향적 사회 풍조가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기적 모더니즘과 국제주의 양식의 영향을 받아 초현실주의 디자인, 현대역사주의 디자인, 그리고 합리주의 디자인 등 다양한 조형양식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보수적이며 장인적 기질이 강한 지오 폰티와 아방가르드 정신이 보여지는 아킬레 카스틸리오니가 대표적 디자이너였다. 60년대 초반 이탈리아의 경제적 성장과 소비주의의 물결은 그 정점에 달했고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 디자인과 이데올로기, 사회문제 등에 관한 각종 사고와 논쟁이 번성했으며, 이에 따른 당연한 논리로 가구와 가구 제조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법과 연구 과제가 대두된 시대였다. 60년대 이

후 디자인의 전환점은 이탈리아에서 널리 전개된 '급진적 디자인(Radical design)'이었는데 국제주의 양식에 대한 반발로 획일성에 반대하여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탐구와 대중적 취향에 관심을 기울였고 고전주의 디자인을 부활시키는 재디자인(Re-design)을 하는 등 전혀 새로운 영역을 시도하였다. 장식적인 요소가 다시 도입되며 오브제에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급진적인 모던은 광범위한 기술적 시도를 수용했는데, 실제로 생산방법과 재료면에서 볼 때, 가구는 그 이전보다도 60년대 동안에 보다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국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의 우수한 재료로 가구를 제작함으로써 좀 더 폭넓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플라스틱을 이용한 가구제작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디자이너는 플라스틱이라는 신소재의 천박하고 값싸 보이는 잠재적 약점을 피하는데 성공했으며 미적 특성이 뛰어난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창안해 내었다. 이들의 비인습적 형태와 색채, 단순하며 편안한 분위기는 자유분방한 60년대의 생활양식을 반영한다. 급진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산업기술에 바탕을 둔 합리주의 경향의 가구들도 꾸준히 연구되었다.

70년대에는 미니멀리즘과 하이테크 디자인의 출현으로 우아한 기능주의를 보여주게 된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에토레 소트사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Memphis 그룹은 가구를 통해 적대감과 풍자, 문화적 우월주의 등을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자유로운 유희적 감각을 강조하면서 장식성과 상징성을 부여하여 사용자와의 긴밀한 교감을 이루고자 했다. 반면, 비코 마지스트레티와 같은 디자이너는 강하고 엄격하기조차한 단순한 선과 디자인의 순수성을 통해 이탈리아인들의 예민한 감성을 대변해준다. 또한, 바우하우스적 기능주의에 인간적인 안락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모더니즘의 맥을 이어갔다.

1980년대 이탈리아 경제는 엄청난 인플레이의 시대였지만 주요 업체들은 연구와 디자인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으며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체는 그 규모 덕분에 유연성 있는 대응에 가장 적절한 생산 모델로 보였다. 급진적 디자이너들은 전체 디자인계의 경향에 자극을 주었다. 다소 차가운 하이테크 디자인으로부터 기능주의, 최고의 소재가 사용된 사치스럽고 과장하기까지 한 포스트 모던 디자인에 이르는 다양한 운동이 동시에 전개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탈리아적 선의 아름다움'을 발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이탈리아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90년대 초반에는 전(前)시대의 쾌락주의적이고 과시적인 화려함이 사라져 갔다. 특정한 지배 조류는 없는 가운데 모든 조류가 총 등장하는 경향으로, 90년대 중반부터 미니멀리즘과 자연주의의 뚜렷한 경향을 느낄 수 있고 신허리주의 경향도 두드러진다. 또한 형태상의 조류에 집중되던 관심은 점차 다른 기준으로 이전되기 시작했다. 즉, 작품 평가에서 제품의 판정기준과 유효성의 기준이 단순한 미로부터 소재의 주의 깊은 이용, 적절한 가격대 품질비, 환경적 요소, 사용성 등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이탈리아 가구의 특성은 인간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제반 환경이 통합적으로 작용되어 나타났으며 그 성공의 이면에는 모든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뚜렷이 알 수 있다.

가구는 살아있는 시대상의 반영 또는 표현이자, 메시지를 담

는 그릇이 되었으며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시 또는 주창하며, 그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가구디자인은 이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물품이나 그 기능을 세련되게 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점점 더 자극적이며 정서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그 구조와 의미가 바뀌고 있는 세계에서 가구는 잃어버린 정서와 포근한 위안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다원주의 경향하에서 우리의 가구 디자인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서와 문화를 산업구조에 적절하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만의 특징과 장점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이 그러한 체계적인 관점을 심어주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세계 대백과 사전: 동서문화, 1997
- 피터도머, 강현주·조미야: 1945년 이후의 디자인, 시각과 언어, 1993
- 경노훈·윤민화: 디자인 문화와 생활, 예경, 1999
-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1
- Karl Mang: History of Modern Furniture, Abrams, 1978
- Sembach외: Furniture Design, Taschen, 1991
- 정은마: 19세기 이후 서양가구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 Laura Lazzaroni: 35Years of Design at Salone Del Mobile, Cosmit, 1996
- Edward Lucie-Smith: Furniture a Concise History, Thames and Hudson, 1978
- Volker Ficher: Design Now(Industry or Art?), Prestel, 1989
- Nina Bornsen-Holtmann: Italian Design, Taschen, 1994
- 편집실역: The Italian Furniture, 가구소식, 1991